고흥군, '10월 분청문화의 날'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

민관 합동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행사 개최 준비



고흥군과 경찰·소방, 민간전문가 등이 행사장 안전점검에 앞서 점검 사항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31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리는 '10월 분청문화의 날'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30일 행사장 일원에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흥군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해 행사장 주요 시설과 관람객 동선 등을 살피고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대 및 행사 시설물의 설치·고정 상태 ▲전기·소방시설 관리 상태 ▲행사장 내 관람객 이동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여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체계 등으로,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고흥군은 미흡한 사항을 행사 전까지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제20회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지난 30일 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제20회 보훈가족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성군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상철 보성군 부군수와 서정미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해 지역 10개 보훈단체 회원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스무 해의 감사, 보성이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식전 공연과 기념식, 보훈가족 위안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고, 보훈가족 간 감사와 위로를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손태온 지회장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10개 보훈단체가 협력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해남미남축제 개막…첫날부터 인파 몰려

해남군이 주최하는 해남미남축제가 지난 30일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막한 가운데, 첫날부터 7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으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해남쌀'을 주제로 전시와 체험, 판매, 라이브커머스를 연계해 해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첫날 해남쌀 라이브커머스에서 7,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푸드관과 주전부리관에서도 7,000만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축제장에서는 미남푸드관과 주전부리관을 비롯해 쌀 활용 요리체험, 김치 만들기, 고구마 캐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는 11월 1일까지 이어지며, 낭만콘서트와 청년축제,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해남의 맛과 멋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종옥 기자

진도군, 제51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1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군민과 향우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군민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화합과 소통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각 진도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김춘화 진도군의회 의장, 이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박운철 재경향우회장 등 주요 인사와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향우 등이 참석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진도와 완도 지역 농협들이 각각 1천20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으며, 진도농협과 해남농협도 각각 500만원을 상호 기부해 지역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가영 기자

제28회 장흥읍민의 날 성황리에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은 지난 30일 탐진강변에서 읍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장흥읍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읍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흥읍이 주최하고 장흥읍민회가 주관했다.

행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풍물과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체육경기, 읍민 어울림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주민 안전과 이웃 나눔에 앞장선 박하선 씨가 사회봉사 부문 읍민의 상을 받았으며,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봉양한 노공민 씨가 효행상을 수상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49개 마을 주민들이 8개 팀으로 나뉘어 신발 던지기, 낚시, 박 터트리기 등 친선경기를 펼치며 화합을 다졌다.

/김정근 기자

완도해경, 하반기 지역수색구조기술위원회 개최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관계기관 협력체계 점검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동절기 해양사고 대응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하고있다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태환)는 지난 29일 동절기 해양사고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수색 구조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완도해경을 비롯해 지자체, 소방, 해군 등 18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으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절기는 기상 여건의 변화로 해상에서의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지역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고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실제 해양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구조활동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완도해경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수색구조 업무에 반영하고, 평상시에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해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송규하 경비구조과장은 "해양사고 초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동절기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